건설사 제재 금호·남양·금광 포함 나주 혁신도시 청사건립 수주 영향

광주·전남 18곳… 지역경제 타격 우려

금호산업, 남양건설, 금광기업 등 광주·전남지역 중견건설사 18곳이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줄줄이 발주가 예정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건립공사 수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30일 광주일보가 조달청과 지자체, 건설업계 등을 취재한 결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를 받은 지역 건설사는 이들 업체를 비롯해 남해종합개발, 중흥건설, 동광건설, 남영건설, 남해종합건설, 남도건설, 대진종합건설, 삼능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송촌종합건설, 대선건설, 백산건설, 남진건설, 진흥건설, 중도건설 등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69개 건설사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낙찰제 공사 수주과정에서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제출해 적발됐다.

조달청은 가담 정도와 낙찰 여부에 따라 다수 가담자(현대·대림·쌍용·동양)는 9개월간, 낙찰자는 6개월, 단순 가담자는 3개월로 나눠 부정당제재를 내렸다. 해당 건설사들은 오는 13일부터 제재기간동안 공공공사 입찰이 전면 금지된다.

지역 건설사들은 3개월 제재 3곳과 아직 처벌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4곳을 제외한 대부분이 6개월 제재를 받았다.

코스피 상장 기업인 금호산업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전자공시를 통해 공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줄줄이 발주가 예정된 나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사 건립 입찰에 이들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도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 통보를 받고 전수조사를 거쳐 9개 건설사를 적발, 해당 건설사에 오는 6일까지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업체는 영산강살리기 7공구 사업과 진곡산단 진입도로 공사, 일곡~용전 도로확장공사를 수주했다.

광주시는 이를 토대로 오는 9일께 계약심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 제한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조달청이나 지자체, LH 등 어느 한 곳에서만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으면 전국의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며 "특히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농협 신·경 분리 개편안 통과

직원 수 2만명 돌파할 듯… 노조는 강력 반발

농협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판매) 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이 급물살을 탔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과 인력개편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조직개편안은 기존 사업구조를 바꿔 1중앙회·2지주회사(경제·금융) 체제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핵심이다.

'경제지주'는 1개 본부·2개 부서로 구성되며, 13개 자회사를 거느린다. '금융지주'는 4개 본부·8개 부서 체계로 구성되며, 은행과 생명보험·손해보험·투자증권 등 7개 자회사를 둔다.

관리 업무가 줄어든 농협중앙회는 현재 4개 본부가 2개 본부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신용 · 경제분리와 관련한 인력 배치도 의결됐다. 조직개편 후 농협의 전체 직원수는 2만92명으로 1097명이 늘어나 2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험인력 670명을 확충하는 금융지주는 1만4700명으로 전체인력의 70%를 차지하게 된다.

자회사와 영업망 확대 영향으로 비상근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72명으로 37명 늘어나고, 집행간부는 15~16명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본부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라 중앙회 지역거점 조직과 '농협은행' 지역거점 조직의 이원화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현행대로 16개 지역본부가 유지되지만, 금융사업부는 '농협은행'으로 분리해 16개 시·도에 영업본부를 설치하게 된다.

지역본부 조직은 현행 경영지원부·경제사업부·금융사업부 등 '3부1팀' 체제에서 경영지원부·경제사업부 등 '2부'로 개편된다. 시·군 지부 역시 중앙회 소속의 '농정지원단'과 '농협은행' 소속의 시·군지부로 분리 운영된다.

연합판매사업이 규모화된 전국 62개 시·군지역은 지역본부 직할로 '연합사업단'이 설치 운영된다.

이에 대해 농협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 조직을 개편하고 직원을 배치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신·경분리 시점을 오는 2017년으로 연기하고 정부가 지원키로 한 4조원을 제외한 부족 자본금 8조2000억원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3월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2년 3월 1일부터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된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 가전로봇센터 개관 생활가전과 로봇기술이 접목한 가전로봇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건립된 광주 가전로봇센터가 지난 30일 광주시 북구 첨단산단 광주테크노파크 내에서 강운태 광주시장, 김재균 국회의원, 송광운 북구청장, 유동국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을 열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자영업자의 반격… 카드사 '사면초가'

"추가 인하는 불가능"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촉구하며 30일 동맹 휴업에 나서자 카드사들이 궁지에 몰렸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려 성의를 보인 만큼 추가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소속 300여만명의 중소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업종 구분없이 1.5%로 낮춰달라며 하루짜리 휴업에 들어갔다.

룸살롱, 나이트클럽, 마사지업, 노래연습장, 경비업, 안경업, 학원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돼 그 어느 때보다 카드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 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장은 "업종 구분없이 카드 수수료율을 내려야 중소 자영업자들이 차별 없이 영업할 수 있다. 동맹 휴업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대규모 시위를 계속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사들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로 늘리고 수수료율을 1.80% 이하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올해 7개 전업 카드사의 손실만 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카드사들은 올해 가계 대출 우려로 당국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규제한데다 가맹점 수수료율까지 낮아져 수익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식업 농수산물 세제혜택 계속

부가세 공제 우대 시한 폐지

음식업 식재료용 농수산물에 2012년까지 적용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공제 우대조치의 시한이 없어진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상·하반기로 나눠 배정된다. 연초 자금 신청이 집중돼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기업환경 개선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가 상시화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사들여도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일정액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음식업 공제율은 개인은 8/108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일몰되면 2013년부터 3/103으로 내려갈 예정이었다.

정부는 음식업 종사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일몰 기간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해당 공제규모는 1조4000억원이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847.51 (-9.01)
▲ 코스닥지수 492.81 (+0.08)
▼ 금리 (국고채 3년) 3.38% (-0.05)
▼ 원·달러 환율 1143.00원 (-2.4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광주 광공업 생산 급감 전자·전기·자동차 모두 감소

10월 중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이 지난해 같은달보다 9.2%, 지난달에 비해 7.5%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10월 중 광주·전남 광공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부문에서 -16.8%, 전기장비 -16.1%, 자동차 -11.4% 등이 감소하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줄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9.9% 감소했고 재고는 11.7% 증가했다.

전남지역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5.8%, 전달보다 3.9% 각각 증가했다. 생산자 제품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과 같았고, 재고는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